

보일러 등 고효율화사업 추진

산자부, 7대 기술기반 조성에 5년간 1500억 투입키로

산자부가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입해 7대 에너지 다소비 기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기기로 개발키로 하고 '7대 기술기반 고효율 에너지 기기 개발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7대기기는 국내에너지소비량의 17.9%에 해당하는 보일러와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로 국내 에너지소비량 1억5852만 9000toe의 41.2%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기별 에너지 이용 효율이 40~89%에 머물고 있어 효율향상시 에너지 절감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7대 기술기반 고효율 에너지기기 개발사업'에서 7대 기기에 대해 각각 기술개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기술개발에서 보급·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산업계 중심, 수요자와 개발자의 공동연구를 강조함으로써 에너지고효율기기의 성장동력 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2년 이후 181만8000toe의 에너지절감과 799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150만7000TC의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7대기종중 가전기기 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6대 기기는 선진국에 비해 20~30%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미국 DOE에서 '수퍼 보일러 (Super Boiler)개발'을 추진해 효율 95%와 NOx 5ppm까지 가능한 보일러가 개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는 '7대 기술기반 고효율 에너지기기 개발사업'을 통해 보일러 효율이 현 89% 수준에서 2012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전동기의 경우 85%에서 2012년까지 90%이상, 냉난방기기는 열량 흡수율 성능계수를 1.0에서 2012년까지 1.3~1.5 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산자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개발전략에서 제품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전략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제품화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 산업체 중심으로 R&D를 추진해 출연연구소, 대학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및 개발자(중소기업)와의 공동연구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수요기업의 참여를 통해 시장성 있는 기술개발과 조기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